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성 확대 방안 마련

이은정, 윤정호, 이상혁, 김재욱, 김유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
e-mail:ejlee@kei.re.kr

Study on Improving the Applicability of Environment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un Jung Lee, Jeong Ho Yoon, Sanghyuk Lee, Jaeuk Kim, Yuhoon Kim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요약

효율적인 국토-환경관리와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국토의 환경정보를 종합·과학적으로 평가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개선 및 구축하고 있다. 환경계획의 공간성 강화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환경의 다양한 정보를 공간화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성 확대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와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토-환경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사용 확대와 활용 증진을 위해 그 활용 확대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를 친환경·계획적으로 보전 및 이용하기 위해 환경적 보전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 지도이다. 총 70개의 평가항목(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평가항목은 지역구분(자연, 준자연, 인공)에 따라 차등된 등급이 부여된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70개의 평가항목을 중첩하여 최소지표법을 통해 법제적, 환경·생태적,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03년부터 권역별 작성을 시작하여 현재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전국 지도를 매년2회 개선하여 서비스하고 있지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부재 등의 이유로 활용 분야가 제한적이다. 70개의 평가항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최소지표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최종 1 등급의 면적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으며, 등급별 관리 기준 또한 정립되어 있지 않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들어 환경계획의 공간성 강화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 환경의 다양한 정보를 공간화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역할과 활용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토 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국토의

2. 추진 방안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지원 및 환경계획의 공간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객관성 확보 방안과 제도권 내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도권 내 활용 가능성은 공간환경계획 수립 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공간환경정보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 내 부문별 공간 환경 현황을 제공하고, 환경입지 컨설팅과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 판별 시 등급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참고문헌

- [1] 환경부, ‘2019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운영 사업 최종 보고서’, 2019년.